



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(1/20 기준)

김석환 |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seokhwan.kim@miraeasset.com

DOVES

NEUTRAL

HAWKS

Board

VOTERS

FRB

Alternate

NONVOTERS



라엘 브레이너드
부의장

(1/19)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으며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2%로 돌아가도록 한동안 충분히 제한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할 것



리사 쿡
이사

(1/6)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선호하기에는 여전히 높지만, 신규 임대료와 주요 자재 공급 부족 감소 등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 조짐 확인. 기대인플레이션 낮아져야



필립 제퍼슨
이사

(11/17) 낮은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확장, 즉 모두를 위한 경제를 달성하는 데 핵심. 높은 인플레이션은 저소득 가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혀



마이클 바
부의장

(12/1) 금리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. 충분히 제한적인 금리에 도달하고 충분히 긴 시간동안 제한적 금리를 유지하는 데 동의



제롬 파월
의장

(1/10)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물가 안정을 회복하려면 금리를 인상하여 경제를 둔화시켜야.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는(not popular) 조치 필요할 수 있어



크리스토퍼 월러
이사

(11/16) 최근 지표를 통해 12월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고려하는 데 마음 편해져. 그러나 더 많은 지표를 볼 때까지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



미셸 보우먼
이사

(1/10) 최근 몇 달 동안 일부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했지만 할 일이 더 많아. 12월 회의 이후 언급한 것처럼 FOMC가 통화정책 강화를 위해 금리 인상 지속할 것



오스탄 굴스비
시카고

(1/9) 시카고 연준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건강한 경제와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육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. 그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



패트릭 하커
필라델피아

(1/18) 올해 '몇 번' 더 금리 인상에야. 75bp 금리인상 불필요. 앞으로 25bp씩 올리는 게 적절. 근원 물가는 연내 3.5% 도달 예상. 올해 성장률은 1% 전망



로리 K. 로건
댈러스

(1/19) 차기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. 서비스 인플레이션 상승은 경제 과열, 특히 타이트한 노동 시장 영향 때문



존 윌리엄스
뉴욕

(12/16)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 보이고 있지만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기타 요인들이 물가 압력을 계속 높이고 한동안 높은 금리가 지속될 것. 여전히 '길' 있어



닐 카시카리
미니애폴리스

(1/4) 기준금리 5.4%까지 올려야. 인플레이션 감소의 구체적인 징후를 보지 못한다면 금리 계속 올릴 수 있어. 긴축 정책의 완전한 효과를 본 이후에 추가적인 평가 필요



라파엘 보스틱 ★
애틀랜타

(1/10)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. 2분기 초까지 기준금리를 5% 이상으로 인상한 다음 '오랫동안' 유지해야.



메리 델리 ★
샌프란시스코

(1/10) 기준금리 5% 이상 전망.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오는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생겨.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너무 일러



수잔 콜린스
보스턴

(1/19) 더 느린 긴축 속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. 그러나 5%를 약간 상회하는 금리 수준 필요하고 한동안 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해야. 연착륙 가능성 낙관



토마스 바킨 ★
리치몬드

(1/12) 연준의 목표는 경제를 해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것.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 목표를 변경하면 신뢰도가 위험에 처하고 더 많은 희생 필요



에스더 조지
캔자스시티

(1/6)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목표(2%)로 확실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신호를 받을 때까지 5% 이상에서 유지되는 것이 적절. 대차대조표 축소 노력도 지속



로레타 메스터 ★
클리블랜드

(1/18) 연준 의도대로 인플레이션 둔화하고 있지만 추가 인상 필요. 최종금리는 작년 전망(5.1%)보다 '조금 더' 높일 필요. 과소긴축에 따른 위험 더 크다고 생각



제임스 볼러드
세인트루이스

(1/18) 근원물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차기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적절. 올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것. 현 금리 제한적 수준 도달 안 해

주) 2023년 1월 은퇴 예정